

근대역사문화의 보호

정 현 수(전 강경역사문화연구원장)

충청지역의 근대역사문화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강경은, 조선시대부터 유교문화가 발달하였음. 또한 강경포구를 발판으로 형성된 광활한 상권은 한 세기 동안 호황을 누렸으며, 일찍이 기독교문화가 정착하는 등 근대역사문화의 꽃을 피웠음

1. 강경의 지리와 유래

- 가. 강경은 천혜의 지리적 조건인 금강하류의 조수(潮水)가 왕래하며 아주 옛날에는 갈대밭 저습지대의 작은 갯마을이었으며 논산천과 만나는 지점에 포구형성
- 나. 1757년(영조 3) 『동국여지승람』에 은진현 강경포라는 기록이 있고, 대동여지도, 세종실록, 승정원일기에 강경이 나옴. 아주 먼 옛날부터 강경이라 하였으며, 마을마다 유래와 전설
- 다. 이종한의 『택리지』에 은진고을 강경은 충청도와 전라도 육지와 바다 사이 지도와, 강경시장에 대하여 기록되었음

2. 강경포구

- 가. 강경포구는 군산항까지 37km로서 접근성용이, 수상교통 이용, 하루에 100여척의 선박 등 중국무역선까지 왕래함으로서 상권형성 되었음. 따라서 조선 후기부터 1 평양, 2 강경, 3 대구로 3대시장의 하나. 원산과 함께 전국 2대포구
- 나. 강경포구(기벌포)는 군사적 요충지(나당연합군 백제 사비성 함락, 충남역사 자료)
- 다. 일제강점기 금강변, 강경천 제방을 쌓고 갑문 설치, 대흥천 따라 내륙 깊숙이 배가 드나들었으며, 팔다 남은 수산물 보관 위해 염장법 개발- 젓갈시장 형성
- 라. 일제강점기에 수탈의 현장. 전성기에는 상권이 번창하여, 객주가 등장하고 보부상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 강경포구 일대는 불야성을 이루었음

3. 근대역사문화

- 가. 천혜의 지리적 조건인 금강 하류의 넓은 평야와 강경포구 주변의 풍광이 아름다워 황산에 죽림서원, 임리정, 팔괘정 건립- 기호유교문화의 산실
- 나. 또한 일제강점기에는 근대 문화(전기, 병원, 극장, 호텔, 밀차 등)가 발전하여 호남 최초의 문화 시설과 근대건축물, 기독교문화와 함께 근대역사문화의 꽃을 피움

다. 1896년 파울링(Edward Clayton Pauling) 선교사에 의해 옥녀봉 지병석 씨 집에서 한국 최초 침례교회 예배를 드렸고, 이듬해 한국 최초 ‘ㄱ’ 자 교회를 세웠으나 1943년 일제 만행으로 소실되었음

▶ 1901년 창립된 강경 감리교회는 강경 덕유정에서 예배를 드렸으며, 지역 최초 사립 만동학교 및 유치원을 설립. 지역선교에 크게 기여하였음

▶ 1918년에 정달성 전도사에 의해 창립된 구 한옥 성결교회는 당시 초대감독이었던 영국 존 토마스(John Thomas) 선교사가 당시 강경3·1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일본 헌병에게 구타당하여 골절상을 입고, 일본으로부터 보상받은 일부를 교회에 헌납하여 지은 교회임

▶ 1933년 강경성결교회의 도움으로 세워진 이웃 성동의 병촌성결교회는 한국전쟁 당시 66인의 교인이 무참히 학살당하였음

▶ 1843년 중국에서 서품을 받고 강경포구에 잠입한 김대건 신부 유숙지

4. 강경의 쇠락

근대역사문화 도시 강경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1914년 호남선 철도 개통, 고속도로의 건설 등 육로 운송 수단의 발달로 수상 운송 위주의 상권이 위축되고, 주변지역에 새로운 도시들이 발전하면서 지역세가 급격히 약화되었음

5. 강경 되살리기 운동

가. 한 세기 동안 호황을 누리던 근대역사문화의 도시 강경이 급격히 쇠퇴하자 1997년 당시 전일순 시장이 강경 되살리기 운동을 제창(충남연구원 연구발표)

나. 강경 되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젓갈축제를 개최(2013년 국가 최우수축제). 옛 3대시장의 명맥을 유지, 방치된 금강 둔치 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흥천 복개, 외곽도로 개설 등 강경되살기에 안간힘을 썼으나 시대의 흐름을 극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6. 강경역사문화연구원 창립

가. 2005년 강경제일감리교회 윤석일 담임목사님이 목회지침을 지역선교에 두고 강경 역사문화의 소중함을 인식하여 2010년 자비로 『근대역사문화의 보고 강경』 발간

나. 윤석일 목사, 당시 강중선 시의원, 정현수 전 번영회장이 강경역사문화연구원 창립을 주관하여 강경 발전에 의지가 있는 분들이 뜻을 모아 2011년 4월15일 창립

다. 그동안 소중한 문화재를 발굴 보존, 『근대역사문화의 보고』 개정판 발행

라. 강경의 역사와 문화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강경의역사문화』발간(2012), 논산경

찰서성역화를 위한 논문 발표, 강경 기독교성지 순례 코스 완성, 강경노동조합 변천사, 강경포구 스토리텔링 등 강경역사문화에 대한 책자와 각종 논문발표

- 마. 2012년 구 한일은행에 강경역사관 개관. 제일감리교회 꿈꾸는 동산에 근대역사전시관 개관, 구 노동조합에 강경홍보 및 쉼터 개관. 옥녀봉 최초침례교 예배지 복원
- 바. 선진지 견학을 통한 역사문화 재인식, 잘못 표기된 문화재 명칭 변경, 각 언론매체를 통한 강경역사문화 적극 홍보
- 사. 2014년 강경역사문화연구원 사단법인 인준
- 아. 2014년 충청도 대규모 최초 강경3·1독립만세운동 학술세미나를 거쳐 옥녀봉에서 만세 재현 행사 개최, 2016년 논산시 단위 행사로 발전
- 자. 2014년 강경역사문화학교 개강, 수강생 선진지 연수 등 잊혀진 역사문화교육, 함께 만드는 근대역사문화마을 강경 워크숍 등 각종 세미나 개최
- 차.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각 초중고등학교와 MOU 체결
- 카. 2015년 강경갑문과 채운산 정수장, 강경 천주교 성당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됨
- 타. 강경역사문화 창달에 기여하여 연간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에 성공

강경은 전국에서가장 작은 읍(7.09m²)이지만 가장 많은 역사문화재와 정신문화, 근대 건축물이 살아 숨 쉬고 있는 근대역사문화 보고로서 미래의 꿈과 희망임. 따라서 논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